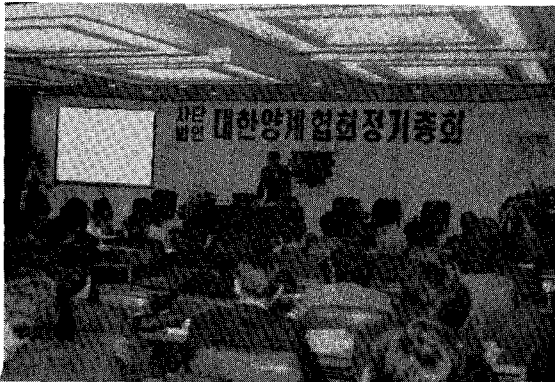




본회 '86년도 정기총회 성료

- 신임회장에 정태원씨 선임 -
금년 주요사업으로 홍보촉진사업 적극 추진키로



△본회 '86 정기총회가 2월20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는 지난 2월20일(목) 오후 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86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상윤회장의 인사말과 이재근고문(고대 명예교수)의 내빈치사에 이어 이재식감사는 감사보고를 한 후 황인옥전무가 지난해 사업보고와 예산집행결산을 보고한후 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류종래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상윤전회장과 업종별 대표로 노광순, 장민기, 신흥중위원을 전형위원으로 선출하여 정태원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어서 8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의결, 정관개정, 고문추대, 이사회 위임사

항 결의 등 기타사항을 심의했다.

금년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양계산물 소비 촉진 홍보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9개안을 통과 시켰으며 기타사항으로 계란가격안정을 위한 양계농가 실천사항을 결의했다.

결의문 내용은 △노계 도태를 1개월 앞당겨 총생산량의 6%를 감축하고 △대군업자는 규모의 확장을 자제함은 물론 초생추 입식을 감축하는데 3만수 규모이상의 농장이 앞장설것과 △계란소비를 적극 홍보하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는 금년도 예산안 5억5천6백40만 4천원을



△ 총회가 끝난후 양계산업발전과 상호우의를 다지는 리셉션을 가졌다.

지었다. 새 회장에 정태원(홍성농원·홍성사료대표·현 사료협회 명예회장) 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새 임원진을 구성 했다. 신임 정태원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회장단과 임원이 이룩해 놓은 튼튼한 기반위에 전양축가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본회와 양계산업발전에 공이 큰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감사패〉

- 김기석박사(농촌진흥청, 전자축위생연구소)
- 송기홍원장(다나축산약품, 본지 편집위원)
- 심준식사장(신곡농장, 천호계우회 회장)

〈공로패〉

- 노광순사장(운암농장 본회 감사)
- 최명훈사장(월산농장)
- 이현진사장(전북지부)
- 안명수사장(전남지부 지부장)
- 이용익사장(경남지부)
- 강태호사장(제주지부 전 지부장)

한편 85년도 농수산부장관 표창에 복합영농유공자 장민기본회 부회장과 사료절감 유공자 한 순부회장에 대한 전수가 있었다.

이어서 본회 재임중 공로가 큰 이상운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를 신임 정태원회장이 전달했다.

□ 회장단

회 장 : 정태원(홍성농장·홍성사료대표, 사료협회 회장 역임)



(차 상진 부회장) (한 순 부회장) (장 민기 부회장)

부회장 : 차상진(봉명부회장, 부화)
한 순(홍일농장 : 채란)
장민기(버들농원 : 육계)

□ 감 사

노광순(운암농장)
배성황(삼화농원)

□ 이 사

이상운(부화), 신흥중(부화), 박준영(부화), 최병현(부화), 이계옥(부화), 류종래(부화), 이규상(부화), 이재식(부화), 이종운(부화), 김용찬(부화), 홍용완(부화), 원승재(육계), 이학복(채란), 김 현(채란), 한명복(채란), 김중경(채란), 황석규(채란), 최영식(채란), 심준식(채란), 허 돈(채란), 김영환(채란), 이진남(충남지부), 박옥룡(전북지부), 안명수(전남지부), 조동필(경북지부), 김성봉(경남지부), 김기석(제주지부).

이어서 양계산업의 발전과 상호우의를 다지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육계산업의 발전전략 심포지움개최

- 2월18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

본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본회와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가 주관하고, 한국사료협회(회장 마영호), ASA(대표 이경원), 한풍산업(대표 최죽송)의 후원으로 지난 2월18일 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육계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을 학계, 업계, 양축가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봉국회장은 개회사에서 「육계산업은 짧은



(오 봉국 회장) (이 상운 회장) (지설하 국장) (이 계조 회장) (세끼씨) (김 선중 박사)

역사이지만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그 발전에 비해 생산체제, 유통, 질병 등 고질적인 양계 분야의 영세한 취약점이 있어 안정적 발전을 못해왔다고 전하고 이의 효율적인 해결책강구를 위해 본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운회장은 「육계산업발전은 생산 유통, 소비 등 삼위일체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86·88국제 행사를 육계산업발전의 전환점으로 찾자고 역설했다.

지설하국장(농수산부)은 축사를 통해「생산성제고, 사료효율개선, 질병예방, 적정가격유지, 농민소득증대 등 문제가 있으나 정부의 개입시 장기적인 불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산지가격과 시장가격의 현실화의 중계역할을 생산자단체에서 하루 빨리 영역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최대한 양계산업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오봉국박사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육계산업의 불황은 발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보호무역정책 등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토마스박사(ASA 학술부장)는 “미국에 있어서 브로일러 생산기술 체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자기농장의 알맞은 여건을 고려해서 품종, 사료 등을 선택하여 생산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중박사(서울대 농과대)는 “우리나라의 육계질병 발생현황과 대책”에서 브로일러 질병예방과 치료에는 자료의 부실로,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브로일러가 양계질병전수

에 2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양계농장의 밀집성, 계절간의 극단적인 온도차, 경영면에서의 결함, 종계의 청정상태 및 부화위생의 개선책이 없이 질병을 최소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세끼 씨(일본 田村제약 학술부장, 北里大 비상근강사)는 IB백신의 경우 생독백신은 예방을 위한 약인 동시에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때문에 호흡기병을 유발, 악화시켜 집중한 계체(鷄體)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생독을 접종하지 않고 사독만을 접종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천호그룹 이계조회장은 “육계의 가공유통에 있어서 문제점과 발전전략”에서 우리나라는 현 도계유통은 몇군데서만 협조가 된다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천호인티그레이션은 꾸준하게 우리나라 도계유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리라고 밝혔다.

또한 더 싸게 생산하고 더 먹게 하는 노력, 소비자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육계의 가공유통에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범위를 축소하여 육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 어느때 보다도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특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업자가 발표자로 나서 현장보고 형식의 자책폭로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학자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질의자 선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허신행박사는 심포지움을 정리하면서 육계산업발전을 위해 △유통혁신에 대한 생산자의 성취동기 필



△ 육계산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그 해결책을 논의한 육계산업 발전 심포지움

요스 생산자단체 등 지도그룹 부상 △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생산자 의식제고 △ 건전한 사명의식의 대자본의 유입필요 △ 정책적 배려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심포지움을 마감하며 오봉국박사는 요약보고를 통해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도약의 몸부림을 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얻어진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건의, 학계, 업계별 문제점을 제시해 계속 노력하여 큰 결실을 맺자고 역설했다.

심포지움이 끝난 다음날인 2월19일에는 하루종일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 업계중진들과 심도있게 문제점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 2 차 양계산물 소비홍보 협의회 개최

업종별기준치 확정, 홍보협의회 회장에 오봉국교수 선임

- 부화기입란능력 종란 2 원, 채란계 성계 수당 5 원, 육계 수당 3 원으로 -

제 2 차 양계산물 소비홍보 협의회가 지난 2월12일(수)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협의위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10일 1 차회의에서 거론된 업종별 홍보비 협찬기준 등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양계관련업계(부화·종계·채란·육계) 협찬기준치 설정, 배합사료, 동물약품, 도계업계별 협찬기준설정, 홍보방법, 홍보협의회 회장선출 등을 결의했다.

업종별 홍보비협찬기준은 양계업계 40%, 사료업계 40%, 도계 7%, 동물약품 5%의 순으로 1억5천만원이며 양계업계 업종별 협찬기준은 부화업자의 경우 부화기입란능력 기준으로 종란개당 2 원, 종계업자는 수입종계에 대해 GPS수당 15 원, PS수당 5 원으로 결정했다. 채란계는 성계사육규모기준으로 수당 5 원, 육계는 사육규모로 수당 3 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관련업계 협찬기준은 배합사료의 경우 '85년도 양계사료생산실적에 의거 톤당 30원으로, 동물약품업계는 협회(협동조합)에서 일괄예산 편성집행, 도계업계는 협회협찬 또는 85년도 도계실적에 의거 업체별 협찬기로 했다.



홍보방법은 협찬금 거출실적을 감안 1, 2, 3 차 단계적으로 홍보추진기로 하고 홍보순위를 △대중잡지·신문 등을 이용 기사제, △TV·라디오 좌담회 등 이용 △전철광고판, 와이드칼라 △시험연구자료 활용의 순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어서 회의에서는 홍보협의회 회장에 서울농대 오봉국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자료검토 및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필요시는 협의회회장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업종별 기준치 설정은 각 업계에서 협찬금 납부기준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양계인 및 관련 산업에서는 양계산업발전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본회에는 현재 회장단 및 임원들이 앞장서서 협찬금을 접수시키고 있다.

홍보비 협찬기준치는 별표와 같다.

1. 업종별 홍보비 협찬기준(86. 1. 10 제1차 협의회 결정)

업종별	예정비율(%)	협찬액
사료업체(배합사료)	40	60,000천원
동물약품	5	7,500
부화	20	30,000
채란계	13	19,500
육용계	4	6,000
도계	7	10,500
축산기구	1	1,500
미사료곡물협회	5	7,500
미대두협회	2	3,000
기타:기관·단체·업체·계우회등	3	4,500
계	100	150,000천원

2. 양계 및 부화업계 협찬기준(86. 2. 12 제2차 협의회 결정)

구분	협찬기준	협찬기준액
업종별		
부화업자	부화기입관능력	종란개당: 2원
채란업자	성계사육규모	수당: 5원
육계업자	사육규모	수당: 3원
종계업자	수입종계수수	수당 G.P. S15원 P.S 5원

본회 신규회장단 이취임식 - 2월25일 본회 회의실에서 -

본회는 지난 2월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신·구 회장단,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 지난 2월25일 본회 사무실에서 신규회장단과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에 이어 신임 정태원회장의 취임 기자회견을 농민신문, 축산시보, 종합축산 현대양계, 유통정보등 관련 신문 잡지사들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신임 회장단 유관기관 방문

본회 정태원회장 한순, 차상진, 장민기 부회장 등 회장단과 황인옥전무는 25일(화) 농수산부, 가축위생연구소, 서울대농대, 축산시험장 등 유관 기관을 신임 인사차 방문하였다.

86년도 계군혈청검사사업 실시 중계농장·산란계 농장등 자립사업으로 - 전국 14개 농장 선정 -

본회는 '86년 계군혈청검사 희망농장접수를 받아 전국 14개 농장을 선정하여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금년도 혈청검사 사업은 과거 실수요자 부담금과 축협·사료협회에서 찬조지원금을 받아 실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면 자립사업으로 실시케 됨에 따라 신청농장중 원종계(GPS) 및 수입종계, 산란계사육농장 등 14개 농장을 선정한 것이다.

본 사업은 198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3월부터 대상농장에 닭질병전문수의사가 직접 출장 방문하여 문제시 되는 질병 등 상호 의견교환과 혈청을 채취해 전염성질병 세균 및 기생충검사, 병성감



△86 계군혈청검사 대상농장 회의

정 등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발생시 해결책을 제시해 해당 농장에서는 양계전문 수의사를 고용한 효과를 얻고 년중 질병피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효율적 질병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주요검사는 농장 일반사항(사료, 식수, 위생검사) 세균, 기생충검사, 추백리, 호흡기성 마이코플라즈마 병, 관절활막염, ND, EDS'76, 닭뇌척수염, 감보로, 계두 등의 면역항체 역가를 조사하며 개별적 성적에 대한 종합의견과 조치사항을 지도하게된다.

한편 지난 2월26일(화) 본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대상농장대표 또는 책임자 회의에서는 이영옥박사(가축위생연구소계역과)를 초청 닭혈청검사 실시에 따른 주의사항, 협조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실시대상 농장은 다음과 같다.

고하농장, 강남부화장, 광암부화장, 양지부화장, 한협축산 중원농장, 봉명부화장, 삼화농원, 대전신기농장, 순흥부화장, 흥성농원, 협업오경농장, 신진농원, 고창양계(이상 14개농장)

우지 품질검사 제도화건의 -품질관리 철저히 실시키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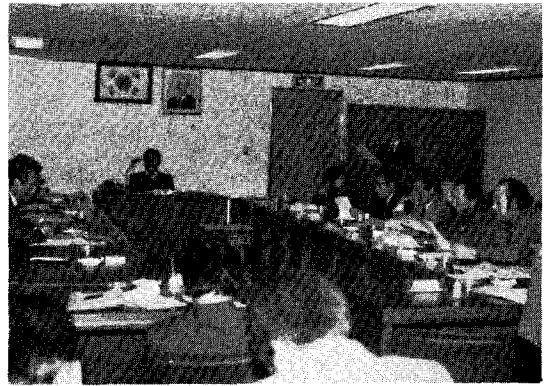
본회는 일부사료공장에서 저질우지사용으로 닭품질에 나쁜영향을 주어 육질저하 사례가 생김에 따라 관계당국에 우지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화를 건의했다.

저질우지사용으로 닭고기 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닭고기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육계산업발전의 저해요소를 방지키 위해 본회는 △ 사료품질개선 △ 우지첨가 기준의 제도화 △ 사료제조회사 품질관리 교육철저 등을 지난 2월초 농수산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관계당국에서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검사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온 바 있다.

'86, 제 1 차 이사회 개최 - 2월14일 축산회관 회의실 -



△금년도 제 1 차 이사회가 2월14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86정기총회 상정(안)이 집중논의되었다.

'86년도 제 1 차 이사회가 지난 2월14일(금)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 신가입회원 및 탈퇴 대상자 제명승인 △ '85 제 2 차 예산추경 △ '85 사업실적 및 수지에산결산서심의 △ '86사업계획(안) 및 수지에산심의 △ 정관 및 규정 일부개정 △ 고문추대 대상자 및 포상자 결정 △ 기타사항등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본회 황인옥전무는 협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사및 회의개최,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86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대부분 심의했다.

한편 년초부터 하락기미가 보여 최근 가격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채란양계업계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실천사항에 대한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전채란양계농가, 계우회에 실천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3월31일 선진지시찰 예정 -



지난 2월27일(목) 본회 회의실에서 2월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육계가격이 550~600원, 지방은 700원선으로 바닥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육계가격의 영향으로 병아리시세가 180원~200원정도이며, 80~150원짜리 덩핑병아리의 출현으로 가격이 엉망인 상태다. 사육농가로부터 입추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대군업자들이 대규모로 입추하는 경향도 있다.

이날 전망은 식란가격이 좋지않아 종란의식란처분이 되지 않고 육계가격이 바닥세로보아 종계노계의 도태를 하지않고 환우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잠재력수수가 예상보다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격의 하락세가 장기간 갈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좀더 입추를 뒤로 미뤄 전망을 관망해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회의에서 육계가 하락에 따른 닭고기 수매전에 대한 토론에서 수매를 실시하므로써 일시적으로는 약간 상승하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입추에 대한 열기가 되살아나 생산수수가 증가하는 점등을 들어 좀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육계업자는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별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여 지역 육계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동참을 촉구하였으며 입추를 자제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3월 육계분과회의는 회원의 친목도모와 지식습득을 위하여 본회회의실에서 간단히 회의를 마친후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관광을 겸하기로 했다. 일시는 3월31일(월) 오전 10시 본회회의실에서 모인다. 희망하는 회원은 차량관계로 미리 본회사무국(752-3571·2)으로 연락해야한다.

'86 제 1 차 도지부장 회의개최

지난 2월14일 본회 회의실에서 도지부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의안건은 회원관리 및 단합대회개최, 지부적인관리, '86강습회 개최전,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협조 등에 대해 본회와 지부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개최되었다.

'86 제 1 차 검정위원회 개최

- 2월 4일 본회회의실 -

지난 2월 4일(화) 본회 회의실에서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86년 입추분인 산란계 18회·19회 검정계의 중간성적검토 및 제15회 육용계 검정 최종 성적분석이 있었다.

이어서 86년도 제 1 차분인 16회 육용계의 검정계획을 결정했다. 검정일정은 3월25일 입란하여 4월18일 입추를 시작, 6월 12일까지 7주간 검정을 실시키로 했다.

양계농가 실천사항 결의 - 계란가격하락 심화됨에 따라 -

최근 계란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인해 물량이 체화되고 계란가격이 장기간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이의 해결책으로 양계인 스스로 생산조절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2월 14일(금) 이사회와 2월20일(목) 총회에서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양계농가 실천사항」을 결의하고 이의 실천을 전국 양계인들에게 통보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양계농가 실천사항

1. 노계도태를 1개월 앞당긴다. (전양계인이 실천하면 총생산량의 약6%감축 효과가 있다)
2. 대군 양계업자는 규모의 확장을 자제하고 초생추 입식을 감축한다. (3만수규모 이상농가에서 10%씩만 감축 입식하면 약4%생산 감축효과가 있다)
3. 전양계인이 합심하여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지등 주변인사들에게 계란소비를 적극권장한다.
4. 대한양계협회에서 추진하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월 채란분과 위원회 개최 -생산조절 집중논의-



2월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2월17일(월)오후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분과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닭질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사로 초빙된 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 박근식과장은 국내 ILT 발생역사 및 예방법, 국내 백신의 제조공정 및 검정에 대한 소개와 백신접종과 백신보관상의 주의사항,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ILT등 닭질병소개와 발생이 우려되는 가금질병 등에 대한 강의와 양계장 방역에 대하여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한 양축가들은 국내생산백신과 외국백신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폈다.

특히 산란계 AE백신여부, NE오일 백신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양계인들의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분과위원회의 토의에서는 생산조절, 계란수매비축, 홍보사업 지원,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생산조절에 대하여는 노계 과감히 도태, 규모확장 자제, 전양계인 능동적으로 친지 등 주변인사들에게 계란소비적극 권장, 협회홍보사업 능동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발적으로 불황타개에 앞설 것을 결의했다.

계란수매비축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계란비축을 실시키로 하고 액란 또는 동결란으로 처리해 계란1천만개 수매를 목표로 비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매비축시 난가상승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 수매비축란의 시장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아울러 생산비축에 대해서는 대군농장에서 적당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본회 금년도 중점사업인 소비홍보사업에 적극협조키로 결의하고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의에서 양계인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고 전양계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2월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2월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순재교수)가 지난 2월13일(목)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양계 2월호(통권 196호) 검토와 3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체험수기, 농장탐방 등 취재기사가 적은 점을 지적하고 배합사료, 수급계획과 육계심포지움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미국 채란업계 시찰단 모집

- 6월중 출국예정 -

미국 채란업계 시찰단을 모집한다. 선진 미국의 시범 채란관련업계를 돌아보며 계란유통·판매·가공에 대한 견학을 목적으로 오는 6월초 출국하며 약 2주간의 일정이다.

미국 농무성과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시찰단 참가신청은 3월29일까지 본회편집국(전화 778-81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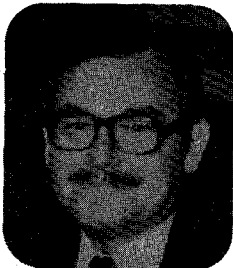
양계산물 소비홍보 세미나 개최 - 본회 후원 3월 13일 무역회관 -

양계산물 소비홍보에 대한 세미나가 오는 3월13일 (목) 오후 2시 무역회관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양계산물 및 축산물의 홍보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계 산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비홍보사업요령이 집중발표될 이날 세미나는 미국에서 저명한 전문가가 초빙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사료곡물협회가 주최하고 본회가 후원한다.

본회 방문



(조순 쓰브레닉 박사)

지난 2월24일 조순 쓰브레닉박사(아이오주 주립대학: 육가공)가 본회를 방문 황인옥전무와 우리나라 육가공, 도계처리, 현황 등 공동 관심사를 나누었다.

조순 쓰브레닉박사는 USFGC초청으로 지난 2월 10일 입국하여 국내 육가공업체를 방문 기술 자문과 문제점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지부 정기총회 개최 - 지부장에 박옥룡씨 피선 -

전북지부 '85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18일 오후 지부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관련업계 내빈 등 57명(위임 10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신임 지부장으로 박옥룡(채란업, 전북 완주군 소양면) 씨가 선임되고 부지부장으로 최상기(채란), 김철한(채란), 박연수(부화) 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업종별 분과위원장에는 채란분과위원장 박옥룡, 육계분과위원장 백홍과, 부화분과위원장 양태순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8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심의, '8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가 있었으며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이 있었다.

전북지부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박옥룡(채란)
- 부지부장: 최상기, 김철한, 박연수
- 분과위원장: 박옥룡(채란), 백홍과(육계), 양태순(부화)
- 지부이사: 이한주, 홍용완, 이기동, 고석수, 최정현, 권 호, 윤세창, 이정열
- 감사: 이복연, 이현진

전남지부 불황타개책 적극 추진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양계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해 불황으로 도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라 이의 조기타개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각지역에 홍보물을 돌리는 등 자구책에 나섰다.

지부보고에 따르면 불황타개를 위해 홍보유인물을 제작 관내 각기관에 돌리고, 불황타개를 위한 홍보비거출, 양계산물 홍보위원회 발족, 부당한세율 인하 쟁기대회개최, 전남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을 개최하여 전 축산인의 단결을 호소하고 조기불황타개에 힘을 모았다.

적정생산·적정 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산업